



간.
만남.
그리고 동행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2013

Istanbul-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3

2013.8.31^{Sat} - 9.22^{Sun}
(23days)



발행권 393호 07-6470409-000162-08

세계를 여는 정복·일지라기에 있는 사람들

@ride
GyeongBuk
공라이드 경북

봄
[통권 393호]
SPRING



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제16회 영덕대게축제 영덕군 강구면 일대(3.29~4.1) 제8회 의성 산수유 꽃 축제 - 노랑 공망울의 향연 의성군 산수유꽃피는마루(3.29~4.7) 손아유 전 포항시 포항시립미술관(3.15~4.28) 공연 블라썸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연(4.1~오프런)	2	3 뮤지컬 '당신만이'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4.3~4.9) 연극 '세자매' 포항 시민중앙아트홀(4.3~4.14)	4 명품DJ김광환이 진행하는 주요의 콘서트 라디오 스타 경주 예술의전당	5 뮤지컬 '후로스 마을에 온 백설공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4.5~4.7)	6 공연 '비밥' 경주 예술의전당(4.6~4.7)
7 제11회 영주 소백산 마리문대회 영주시민운동장 제21회 전국규모유용 경연대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	9	10	11 2013 대가야제향축제 - 대가야의 신성 고양군 대가야박물관 등 (4.11~4.14) 제11회 대구경북국제관광 박람회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광장(4.11~4.14)	12 제13회 경주신라도자기축제 경주시 황성궁원 신라박물관 옆 (4.12~4.21) 2013 청송 잔미 축제 - 자연을 노래하다 청송군 청송읍 동(4.12~11.10) 2013 봄 맞이 가족의 밤 경주 예술의전당	13 제22회 경주벚꽃마라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광장 콘서트 'YB & 리앙' 경주신라박물관 뮤지컬 '죽소 출항전' 경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4	15	16	17 2013 청도소싸움축제 청도소싸움경기장(4.17~4.21)	18	19	20 뮤지컬 '누가 내 머리에 똥 썼어' 영주시문화예술회관(가야홀)
21	22	23 제14회 해동연무대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4.23~4.28)	24	25 제10회 영천보현산 별빛음악회 - 곡을 카루지, 미래를 삼자, 봄을 미지! 영천시보현산천문과학관 등(4.25~4.28)	26	27 2013 문경전통차사합축제 문경새재 일대(4.27~5.5)
28 연극 '그 남자의 자서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9	30				

5. MAY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013 영주신라문화축제 신라촌 등(5.1~5.5)	2	3 오페라 '신데렐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3~5.4)	4 2013 불화 한국과자축제 불화교 불화당사마루 등(5.4~5.5) 뮤지컬 '어린이 CATS' 경주 예술의전당(5.4~5.5)
5	6 백정화·등소평 사진 전시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12전시실 (5.6~5.12)	7	8 뮤지컬 '돈키호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5.8~5.10)	9	10 뮤지컬 '신의 교향곡'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5.10~5.11) 무용극 '처용의 꿈' 상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 공연 '컬투 박찬소' 무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월드이션 피어 장기연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2	13	14 시 승격 50주년 특별연주회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동무홀	15	16 2013 성주생명문화축제 - 상·삼·하랑을 노래하다! 성주군 생명홀 일대(5.16~5.19)	17 제9회 영랑 산나물축제 영랑교정 및 일월산 일원, 영랑 전통시장 등(5.17~5.19)	18 국악 '산도소리'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
19	20 제40회 경주예술제 경주 예술의전당(5.20~5.27)	21	22	23 어린이 안행국 '해물 삼킨 고양이'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5.23~5.25) 제13회 영랑 박목주 전국국악대전 기념공연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4	25 제13회 영랑 박목주 전국 국악대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소공연장 (5.25~5.28)
26	27	28 모스크바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9	30	31 연극 '아버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동무홀(5.31~6.1)	

6. JUNE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리메트와산들의 영화음악콘서트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 통일기원 제13회 포항해변 마라톤 포항수도해수목장 제4회 송동고스 장기연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경주아름침성신오케스트라 제2회 장기연주회 경주 예술의전당	3	4 파스텔 콘서트 -드라마 O.S.T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	5 6월 진보라의 음악이어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	6	7 루마니아 티미소아라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동무홀 함경사랑 퍼포먼스 공연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8 뮤지컬 '고양이 마법사와 공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9	10	11	12 김성태저 활랑문서트 경주 예술의전당	13	14	15 국악공연 '대지의 소리-김선 빛나영역'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광무홀 제2회 금오원드림구미드림 오케스트라 합동 장기연주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6	17	18 6월 상설 The Classic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 이동경 한국화 전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6.18~6.23)	19	20 어린이 안행국 '해님과 달님'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 박조홀 (6.20~6.22)	21 국악 '굿GOOD 보러가자' 상주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2
23	24	25	26	27 경주색소폰오케스트라단 제5회 장기연주회 경주 예술의전당	28 연극 '그게 아난데' 안동문화 예술의 전당 박조홀 (6.28~6.29)	29
30 2013 구미무용제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CONTENTS

PRIDEGYEONGBUK

SPRING.VOL.393

Special Theme	04 김관용 도지사,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영예 06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본격 시작!
알찬살림 부자경복	10 경북농업기술원 개발 '딸기 신품종 '썬타' 국내외 인기폭발
웃음가득 행복경복	12 새 단장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상시개장 14 경북도, 전통한옥 체험숙박사업 대박! 16 중부내륙 관광열차 개통, 백두대간 달린다!
밝은미래 희망경복	18 Why? 독도!
도민사랑 일류경복	20 도청이전 신도시는 지금... 21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
나드리, 이리오이소~	22 경북 봄여행 떠나요! 26 가 볼만 한 곳 - 낙동강과 함께 걷는 숲길여행
따끈따끈 신간	28 '경상북도 오토캠핑' '산길 따라 오지마를 찾아 낙동정맥 트레일' '경상북도 학습여행 워크북' '경북 독립운동사 III, IV권'
프라이드 News+	32 도정단신 36 찰칵! 경북의 오늘 41 도의회 소식 48 경북 알리미 51 지금 시·군에서는



포지 이야기

남편을 향한 아내의 이름값과
송고한 사람이 담긴 활영교에
물빛, 꽃빛이 만나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2012 경북관광사진경모전
_ 최금자 「활영교 봄풍경」(입선)



SPRING

- 발행처 | 경상북도 · 발행인 | 김관용 · 편집인 | 이상국 · 발행일 | 2013년 4월 3일
- 문의처 | 경상북도 대변인실 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1445-3)
TEL. 053)950-3058 FAX. 053)956-4926
- 도정 홍보지 「프라이드 경북」의 구독을 원하시거나 주소가 바뀌신 분은
경북도청 대변인실(053.950.3058)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장 최초 5선 거친 '행정의 달인'



국정과제 선도 추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활동 등 탁월한 공로 인정



김관용 도지사가 2월 1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대통령으로부터 국정운영 유공으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 등의 분야에서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국정의 최대 현안사업인 낙동강 사업의 성공적 추진, 원자력 클러스터사업의 모범적 추진, FTA 선도적 대응으로 농·어업 경쟁력의 향상,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문화 정책의 선도적 실천 등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정운영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로를 크게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정운영에 협력·동반자로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은 '세계 빈곤퇴치의 희망'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으며 최적의 ODA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95년 민선초대 구미시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장 3선과 광역자치단체 2선 등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5선을 거친 지방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꿰뚫고 있는 행정의 달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2006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협의회'를 결성하고 6년간 초대공동회장을 맡아 '수도권 규제 완화 철폐'를 촉구하는 1천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 왔다. 국토발전계획을 서남해안 발전을 위한 L자형 발전계획에서 동해안을 포함한 U자형 발전계획으로 수정하는 구간을 이끌어낸 것도 김 지사의 빼놓을 수 없는 지대한 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10월 만장일치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지역현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감면연장' 등을 국회, 정부부처, 언론사를 방문하여 지방의 어려운 현실과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건의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김 지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공약실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SA), '대한민국 글로벌 CEO',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2012 공생을 위한 사회책임경영 CEO', 'Seoul Success Awards 수상', '2013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에 선정되는 등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민훈장을 수훈 받은 김 지사는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묵묵히 열심히 소임을 다해준 2만5천여 공직자와 현장을 지키며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300만 도민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수훈의 영광을 도민과 산하 공직자에게 돌리고, "더욱 잘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아직도 산적한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맡겨진 소임을 위하여 자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 21세기 新실크로드 탐험 나섰다!

대한민국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 루트 Korea Silk Road Expedition Route



지방 최초 실크로드 통한
문명교류 궤적 찾아
선조들의 발자취 답사

경상북도가 '실크로드 탐험대'를 구성,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우리 선조들이 실크로드에 남긴 문명교류의 흔적을 찾아 탐험에 나섰다.

이는 지방 차원에서는 최초로 고대 동·서양 교역 통로였던 실크로드가 신라의 경주까지 이어졌음을 밝혀 천년 이전부터 한국이 실크로드를 통하여 활발한 역사적, 문화적, 국제적 교류가 있었음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의 모태인 신라문화의 학술적 재조명, 역사화(기록), 범국민 참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 실크로드학을 정립하고, 신라 마케팅과 新한류 문화 창조, 경제영토 확장으로 글로벌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브랜드 파워를 더 높이는 문화와 산업을 아우르는 융합 프로젝트다.





KOREA SILK ROAD PROJECT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가 가게 될 거리는 1만7천여km, 중국 시안과 둔황,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이란 테헤란을 거쳐 터키 이스탄불까지의 여정이다. 8월 31일 '2013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행사의 개최에 맞추어 도착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3월 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실�크로드 탐험대' 발대식을 갖고, 경상북도 경주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실�크로드 대장정을 총 지휘할 탐험대장에 오지탐험전문가 윤명철 동국대 교수, 청년탐험대장에 세계4대 극지를 대학생 최초로 탐사한 윤승철 동국대 학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탐험대원은 인터넷 공모를 통하여 전국 대학생 중에서 선발된 청년탐사팀 19명,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상북도 기수팀 23명, 사진·여행작가, 역사학자로 구성된 역사기록팀 13명, 언론인 홍보지원팀 11명, 유관기관 4명, 구조구급, 행정지원팀 11명 등 7개 팀 8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실�크로드 탐험대’는 이번 프로젝트가 범국민적인 동참 속에 성공할 수 있도록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을 3개 권역(경기·충북권, 호남·남해안권, 강원·동해안권)으로 나누어 홍보활동을 펼치고 경주에서 집결, 3월 21일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탐험에 들어갔다.

국내구간으로 경주에서 대구, 안동 도청이전지, 상주, 충주, 화성 당성 등을 거쳐 평택항에 도착한 탐험대는 3월 24일 중국 위해항으로 출발하여 상해, 항주, 소주, 남경, 정주, 낙양 등 실�크로드의 주요루트였던 중국 도시들을 순회하며 다양한 문화공연과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장정을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8월 31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막하는 '이스탄불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행사의 불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또 탐험대원들은 실�크로드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선조들의 흔적을 찾아 보며, 탐험을 기록하고 사진도 찍어 대장정을 마친 후에 '실�크로드 사진'으로 펴낼 계획이다.

이번 탐험대의 중국 여정은 실�크로드 중심도시인 시안(西安)에 도착하여 마무리한다.

경북도는 4월 4일 시안에 도착하는 탐험대를 맞아 김관용 도지사와 중국 섬서성 문화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행사를 열고, 대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어 김관용 도지사는 4월 5일 시안에서 열리는 '중국 중서부 경제박람회' 개막식에 참석, '경상북도관' 부스를 참관한 후 이동하여 섬서성 정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실�크로드 프로젝트'의 협력을 다짐하는 공동선언문 채택 및 실�크로드 기념비·상징물 제막식을 가질 예정이다.

섬서성은 실�크로드의 대표적인 도시인 서안을 성도로 하는 지방정부로써 많은 실�크로드 문화유산을 간직한 곳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과거 동·서양을 잇던 통상의 길, 실�크로드 옛길 위에 문화의 새 길을 열어가며 천 년 전에 선조들이 갔던 길을 우리가 간다"며, "실�크로드를 통한 新한류, K-POP에서 K-CULTURE로 세계와 다시 융합하고 문화로 소통하면서 경상북도 경제영토 확장의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되새겼다.



경북농업기술원 개발 딸기 신품종 "싼타" 국내외 인기폭발

‘싼타’ 딸기 해외 진출 개척, 로열티 받는 산업으로 육성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과채류시험장은 최근 일본 딸기의 로열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딸기 신품종 육성사업을 실시한 지 4년 만에 축성용 신품종 2품종, 중국과의 딸기 공동육성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육향’, ‘한운’, ‘운향’ 3품종을 중국에 품종보호 출원했다.

우리나라는 2002년 2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품종인 ‘장희’, ‘육보’ 품종사용료를 요구받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딸기의 대부분이 일본품종을 사용하고 있어 연간 30억 이상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에서 일본 딸기에 대한 로열티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무산되고, 2012년 2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우리품종 육성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다. 2006년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내 도산하 기술원이 협동하여 딸기신품종 육성과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경북농업기술원 성주과채류시험장과 함께 딸기 육성사업을 담당하게 되어, 2006년 봄부터 교배와 선발 등 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2009년 12월에 드디어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에 통과한 ‘싼타’와 ‘다온’을 육성하게 되었다.



‘싼타’ 딸기는 2006년 2월경에 모본(매향), 부분(설향)을 교배하여 선발한 품종으로 2010년 2월 24일 국립종자원에 명칭등록과 생산수입판매신고를 완료했고, 2012년 5월에는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했다.

기존의 일본 축성용 품종인 ‘장희’ 보다 과실이 단단하여 유통기간이 길며, 화방이 연속적으로 출뢰하고, 조기에 개화 수확할 수 있으며, 흰가루병에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고온기에도 화아분화가 잘 되는 특성이 있어 축성용으로 적합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경북 고령 뿐만 아니라 경남, 전남 등 전국에서는 일본 품종인 ‘장희’와 ‘육보’를 완전히 대체할 품종으로 농민들 사이에 큰 호응을 불러오고 있다.

신품종 딸기 ‘싼타’의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유로세밀러스(在中國 스페인회사)와 2011년 2월에 협약을 체결했고, 중국에 품종보호출원 신청과 상표등록을 완료하여 해외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2012년 11월 1일 중국과 일본지역에서 ‘싼타’ 딸기 로열티 계약을 유로세밀러스와 체결하여 매년 판매액의 5% 정도를 로열티로 받게 된다.

유로세밀러스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립대(UC)에서 육성한 딸기품종과 대비 상업성 평가를 헤베이성, 베이징, 산둥성, 산서성 등 4곳에서 농가시험을 착수하였고, 이로써 ‘싼타’ 딸기의 중국시장에서의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다.

한편, 러시아를 거점으로 유럽의 딸기시장 공략을 위하여 바이오시밀러 관련 종합생명공학회사인 (주)셀트리온과 2011년 9월에 ‘싼타’ 딸기의 현지 시범재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러시아 현지 로스토프주 셀트리온 농장 온실에서 재배시험을 진행 중에 있다.

또,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농업개발국과 현지 카메룬 하이랜드지역에서 우리딸기 ‘싼타’를 적응성 재배시험을 하고 있으며, 몽골 국립대에서도 현지에서 적응성 시험을 준비 중이다.

향후 중국, 일본 외에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등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경우, 우리 딸기 품종이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 산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trawberry



ISTANBUL-GYEONGJU
WORLD CULTURE EXPO 2013 성공 기원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

‘실크로드 사진전’ 눈길

엑스포 대표 공연 ‘플라이(FLYing)’과 ‘미소2-신국의 땅, 신라’ 한층 레벨 업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이 1월~2월 두 달간 새 단장을 마치고 3월 1일부터 문을 열었다.

지난 2008년부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기간을 제외하고 5년째 상시 개장을 해 오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매년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해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올해는 남녀노소가 쉽고 재미있게 신라와 경주, 우리전통, 문화예술 등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특히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2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성공을 기원하는 사진전, ‘그때 그 시절’로 가 볼 수 있는 ‘이게 뭐야?’ 전시관, 주말에 진행되는 특별이벤트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프로그램이다.

엑스포문화센터에 마련된 ‘실크로드 사진 특별전 (부제 : 동방의 빛을 따라서)’은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의 사진 홍보와 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전시에서는 경주와 신라에 관한 모든 것을 빛으로 그려왔던 ‘신라작가’ 오세윤씨의 사진과 엑스포와 경북도가 소장하고 있는 실크로드 및 터키 사진 100여점이 전시됐다. 터키 생활용품, 의상 등 이스탄불문화원에서 보내온 터키 민속자

료 50여점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고대 실크로드의 출발지와 종착지였던 경주와 이스탄불의 모습과 관련 유물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또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담긴 경주, 시안, 둔황, 바그다드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새 이스탄불에 이르러, 사진으로 실크로드를 탐험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올해 경주엑스포공원에서 최고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이는 프로그램은 ‘추억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하는 ‘이게 뭐야? 그때 그 시절’ 전시관이다.

공원 내 천마의 궁전(공원 서쪽 끝)에 마련된 이 전시관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 어릴적 생활상을 보여주고, 어른들에게는 아련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1950~1980년대 교실, 만화방, 전파상, 만물상, 시골부엌, 농기구창고 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8개 존의 타임머신으로 구성됐다.

2013년 경주엑스포공원의 하든카드는 주말 특별 이벤트.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주말 오후 2시면 천마광장(엑스포문화센터 앞) 야외 특별무대에서 공연 및 체험마당이 펼쳐진다.

모듬북, 매직쇼, 코믹 퍼포먼스, 줄타기, 세대공감 콘서트, 록 페스티벌, 국악 및 민속놀이 한마당 등 관람객에게 흥겨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이 외에도 지난해 싱가포르에 수출해 크게 흥행한 엑스포 대표 공연 ‘플라이(FLYing)’과 신라의 건국신화와 선덕여왕의 러브스토리를 웅장한 뮤지컬로 만날 수 있는 ‘미소2-신국의 땅, 신라’도 안무와 무대 등이 한층 레벨업돼 관람객을 기다린다.

삼국유사 속 재미난 설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천년의 이야기’와 경주타워 65m 지점에 위치한 ‘신라문화역사관’,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3차원 입체영화 4편이 상영되는 ‘3D 애니메이션 월드’는 꼭 둘러야 하는 필수 코스다.

동양최대 규모의 ‘세계화식박물관’, ‘전통 문화체험(한지 뜨기, 입체타본, 부채·손거울·연필꽂이·목걸이·연·보석함·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볼 수 있다.

왕이 거닐었을 법한 ‘신라 왕경(王京) 숲’, 경주타워의 실루엣이 한눈에 들어오는 숨은 비경 ‘시간의 정원’, 걷기만 해도 심신이 치유되는 ‘아사달 조각공원’은 엑스포공원 방문자라면 빼놓지 말아야 할 ‘힐링캠프’다.

공원은 12월 말까지 휴일 없이 운영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공원 입장료는 어린이 4천원, 청소년 5천원, 성인 7천원이며, 단체는 1천원씩 할인받는다. ‘플라이’와 ‘미소2-신국의 땅, 신라’ 관람료는 별도로이며, 플라이 관람객은 공원 입장료가 면제된다.



외국인들의 전통한옥 체험 선호 두드러져...

2012년도 한옥 숙박체험 16만 7천 여명, 2011년 대비 24% 증가

경상북도의 '전통한옥 체험숙박사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012년도 전통한옥 체험숙박 관광객이 167,526명으로 2011년 135,258명 대비 24%, 2010년 112,523명 대비 49%나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P R I D E G Y E O N G B U K

2012년도 한옥숙박체험 실태를 보면, 시기적으로 7~9월에 6만명으로 전체의 36%, 4~6월에 4만 4천명으로 26%, 10~12월에 4만 1천명으로 25%, 1~3월에 13%인 2만 2천명으로 봄철 방문객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숙박체험객이 많이 다녀간 곳은 영주 선비문화수련원이 2만 2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주 사랑채가 1만 2천명, 영주 선비촌이 1만명, 마을단위로는 안동 하회마을을 2만 1천명, 경주 양동마을이 7천 5백명, 고령 개실마을이 4천 9백명 수준을 보였다.

외국인 숙박체험 현황을 보면 숙박객 10명 중 1명으로 2011년 1만 2천여 명에서 2012년 1만 8천여 명으로 50%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주시가 1만여 명으로 56%를 점유한 가운데 안동시가 4천 9백여 명, 영주시가 2천 3백여 명의 숙박체험객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다녀간 곳은 배낭여행자들의 인기 가이드북인 '론리 플래닛(Lonely Planet)'에 추천 게스트하우스로 소개된 경주 황남동 소재 '사랑채(8실, 수용인원 40명)'로 지난해 숙박객 1만 1천 7백명 가운데 55%인 6천 4백 명이 외국인이었다.

경북의 전통한옥 체험숙박이 인기 있었던 이유는 경북도가 도내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 2004년부터 약 136억원의 예산으로 경주, 안동 등 18개 시·군 163개소에 화장실, 샤워장, 주방 등의 개·보수 사업을 하고, 2006년부터 약 21억원의 예산으로 12개 시·군 109개소에 관광객들을 위한 고택음악회, 전통혼례,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최근 관광 트렌드가 보는(seeing) 관광에서 체험(doing) 관광으로 변화하면서 동호인 또는 가족단위 방문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전통 주거지가 가장 잘 보존된 대표지역이 경북이라는 인식과 함께 하회·양동마을의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축제·문화공연 참가 외국인들이 전통한옥 체험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북도는 문화재로 지정된 296개 고택과 23개 한옥집 단마을에 2,000호에 이르는 전통가옥과 전통생활양식 등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집중적으로 보존한 지역으로, 이를 관광자원화 하는 전통한옥 체험숙박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탐방열차 O-train(순환열차), V-train(협곡열차) 개통

그 동안 접근 어려웠던 백두대간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 기대



경상북도는 3월 15일 서울역 3층 맞이방에서 정부부처를 비롯한 지자체, 코레일, 유관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백두대간 관광열차 개통식'을 갖고, 새로운 개념의 관광열차 O-트레인(순환열차)과 V-트레인(협곡열차)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백두대간순환열차인 'O-트레인'은 전망석과 커피룸, 패밀리룸, 유아 놀이공간, 카페 등 총 4량으로 구성,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제천, 태백, 영주 등 중앙선, 태백선, 영동선으로 이어진 중부내륙 순환구간을 1일 4회 운행한다.

또 백두대간 협곡열차인 'V-트레인'은 경북 북부 봉화지역의 분천, 양원, 승부역과 강원도 철암역 등 중부내륙의 절경을 담은 구간을 하루 3회 왕복한다.

열차 지붕에는 태양열 발전판을 설치해 탄소 배출을 줄였고, 접이식 승강문, 조개탄 난로, 선풍기 등 복고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V-트레인'은 천정을 제외한 공간을 유리로 처리해 승객의 관람 시야를 최대한 넓혔으며, 개폐식 창문을 설치해 중부내륙의 상쾌한 공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경북도에서는 백두대간 관광열차 개통을 앞두고 지난 2월 6일에는 산청·강원도·충청북도·코레일·한국관광공사·(주)강원랜드 등 정부지자체공기업과 함께 '중부내륙 관광벨트 구축 위한 공동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참여기관들은 백두대간관광열차 개통을 맞아 트레킹 코스 개발, 슬로우시티 관광개발, 숙박·식당 등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 중이며, 경북 북부 영주, 봉화를 비롯하여 제천, 영월, 태백, 단양 등 관광열차의 주요 정차역을 기점으로 오는 4월 12일부터 당일 및 1박 2일 일정의 관광 프로그램과 시티투어버스, 전용관광버스 등 연계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백두대간 관광열차의 개통으로 수려하고 청정한 자연환경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어도 찾아가기 어려웠던 백두대간 관광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 시민·학생 대상으로 독도 특강

“독도의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자신감 가지고 행동에 나서자” 역설

김관용 도지사는 2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500여명의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반박과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리는 ‘독도 특강’을 실시했다.

김 지사는 이날 특강에서 “독도의 주인은 절대 바뀌지 않고 바뀔 수도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본의 허무맹랑한 주장과 선동을 방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오해를 살 수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일본의 영토리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갖추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민간 외교관이 되어야 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문화와 음악으로 독도를 지킨다!

독도 국민가곡공모전 개최, ‘독도는 독도다’ 대상



경상북도는 문화적 자존과 예술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 나가고자 ‘독도 국민가곡공모전’을 개최, 참가한 125곡 중 1·2차 예선을 거쳐 2월 27일 서울 장전홀에서 본선 행사를 실시, 10곡의 입상곡을 선정한 가운데 성찬경 작곡, 오택번 작사 ‘독도는 독도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시인협회가 노랫말 5편을 제공하여 민간단체와 정부가 공조하여 독도를 노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진 독도 노래는 있었지만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독도 가곡을 선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울릉도·독도, 국내 첫 국가지질공원 인증

기존 자연·문화관광에 지질관광을 추가

경상북도는 2월 20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 이주석 행정부지사, 최수일 울릉군수, 정광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지질공원 인증식에서 울릉도·독도가 환경부로부터 국내 첫 국가지질공원 인증서를 받았다.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은 총면적 127.9km²(육상 72.8km², 해상 55.1km²)로 울릉군 전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으며, 코끼리바위, 봉래폭포, 독도에 위치한 삼형제굴바위 등 23개소가 지질명소로 지정되었다.

지질공원 인증 기간은 4년간(2012. 12. 27 ~ 2016. 12. 26)이며 이후 4년마다 재평가를 받아 재인증하는 제도로 꾸준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준공

독도 해양생태 연구의 메카로 우뚝



경상북도는 동해의 중심인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연구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를 지난 2008년부터 국비 70억원, 도비 56억원, 군비 24억원 등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여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3월 5일 준공했다.

해양연구기지는 울릉군 북면 현포리 일원 28,597㎡ 부지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해양생태전시관, 본관동, 자원육성관, 기숙사 등을 완공, 해양자원조사·연구지원, 해양생

물과 해저미생물 서식환경 연구,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음료 및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상품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도청신청사 지붕 기와에 도민 이름 새긴다!

경상북도의 무궁한 번영을 바라는 도민의 기원을 담아...

경상북도는 도청이전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경북의 무궁한 번영을 도민 모두가 소원하고자 도청이전신도시(안동·예천)에 건립 중인 도청신청사 지붕 기와장에 도민 1만명의 이름을 새겨 넣는 '기와 만인소'를 추진한다.

'기와 만인소'는 도민들의 신청을 받아 기와제작소에서 성형암기와 뒷면에 신청자 성명을 음각 후 소성하여 제작할 계획으로, 참여는 경북도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1만명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경북도청 및 23개 시·군청 홈페이지 알림창 또는 인터넷 포털 다음(www.daum.net) 상단의 배너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되며, 참여비용은 없다.

제작된 기와 설치에는 6월경 상량식을 개최, 기관단체장과 함께 기와 만인소에 참여한 도민을 초청하여 음각된 기와를 도본청 지붕에 7,000여장, 도의회 지붕에 3,000여장을 설치한다.

도청신청사 '기와 만인소'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 총괄지원과(053-950-2317)로 문의하면 된다.

'기와 만인소'는 조선시대 많은 선비가 연명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인 만인소와 달리, 도민 모두가 경북의 번영을 소원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 숲 조성

도청이전 기념 도민화합과 상생 상징

경상북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도민의 화합과 상생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9ha 규모의 명품 숲을 조성,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확충하여 도민들에게 품격있는 휴양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등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문화·휴양공간 편익시설 등을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에 걸쳐 조성하며,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신도시조성사업 시행자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위탁대행협약을 체결, 전문 인력을 적극 활용해 역사와 문화, 테마가 있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명품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3년의 희망키움, 커지는 내 일(my job)의 꿈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10월 10일까지 총 8차 모집



경상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및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제1차 모집은 이미 마쳤으며, 10월 10일까지 총 8차에 걸쳐 희망키움통장 1,100가구, 내일키움통장 1,200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 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5배인 1,7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3인 가구 기준), 대상자 모집기간 중에 일하는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으며,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 구입,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내일키움통장은 1차에 15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 일자리형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성실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월 5만원 또는 10만원의 본인저축액에 내일키움장려금(본인저축액의 1:1) 및 내일키움수익금(월 평균 8만원)을 지원받아 3년 기준 평균 1,100만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3년 이내 일반노동시장 등으로 취·창업 및 시·군청에서 시행하는 금융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945



싱싱! 봄바람 따라 달리는 자전거길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기분 좋은 바람으로 마음을 씻으며,
자전거의 온빛 체인에 감기는 봄의 청취와 경북의 자전거길을 달려보세요.

안동 하회마을과 부용대

낙동강 줄기가 마을을 휘감아 돈다고 해서 '하회(河回)'다. 서애 유성룡의 종가와 남촌·북촌댁이 하회마을을 대표한다. 특히 태백산맥의 맨 끝자락인 부용대 정상에 올라서면 하회마을이 한눈에 들어온다. 길게 휘는 낙동강 곳곳마다 그 절경이 일품이다.

☘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40-1
☎ 054)653-0109
🌐 www.hahoe.or.kr



영주 부석사

한국 화엄종의 근본 도량이다. 676년 신라 문무왕 14년 의상이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고, 화엄의 대교를 펴던 곳으로, 창건에 얽힌 의상과 선묘 아가씨의 애절한 사랑의 설화가 유명하다.

☘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 054)633-3464
🌐 www.pusoksa.org



영주 무섬마을

낙동강지류인 내성천과 사천이 합류하여 마을 전체를 태극모양으로 한 바퀴 휘감아 흐르고 있는데 마을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고 하여 '무섬'이라 불린다.

☘ 영주시 문수면 무섬로234번길 41
☎ 054)634-0040
🌐 www.mu-seom-maeul.com

상주 경천대

낙동강변 기암절벽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가 경단을 자아내고, '하늘이 스스로 내린 경치'라고 해서 '자천대(自天臺)'라고도 불린다.

☘ 상주시 사벌면 경천로 652
☎ 054)536-7040
🌐 <http://gyeongcheondae.sangju.go.kr>

예천 회룡포

명승 제1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낙동강 상류일대에 나타나는 수많은 감입곡류지형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곳으로 하천과 그 주변 신익지형 농경지와 마을이 어우러져 비경을 연출한다.

☘ 예천군 용궁면 향석길 60
☎ 054)653-6696
🌐 <http://dragoninvi.org>



예천 삼강주막과 회화나무

낙동강과 내성천 금천이 합류하는 낙동강 최북단 나루터이다. 경북 민속자료 제134호로 지정됐으며, 삼강주막 주변 수령 5백년이 넘는다는 회화나무를 만날 수 있다.

☘ 예천군 풍양면 삼강리길 91
☎ 054)655-3132
🌐 www.3gang.co.kr



성주 한개마을

크다는 뜻의 '한'과 나루라는 뜻의 '개'가 합쳐진 순우리말로, 옛날 마을 앞 낙동강 지류인 백천에 있던 한개나루에서 유래한다. 문화재로 지정된 대표적 고택이 여러 채 있으며, 전통문화놀이와 함께 고택체험을 할 수 있다.

☘ 성주군 월항면 선월로 219 한개마을 일원
☎ 054)932-9301
🌐 <http://cafe.naver.com/ok3131>



상주보

상주시가 자전거 천국인 점을 감안해 보의 기둥에 자전거를 새겨 넣었다. 상주보 상류 우안으로는 경천습이 펼쳐져 있고, 하류에는 2km 정도의 둔치를 따라 자전거길과 보행로가 조성된다.

낙단보

주변에 낙동강의 3대 누각인 관수루가 있고 낙단보 건설 중 발견된 미애보살상이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 의성군에서 개설한 만경강신 녹색길조성사업이 완상단계에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구미보

74m의 친환경 다기능보와 6km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변생태공원, 3천㎡를 생산하는 소수력발전소 등을 갖추고 있다. 구미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엘리베이터 전향대로, 360도 모든 방향으로 낙동강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정고령보

48칸 16개 보 가운데 최대 규모길이 9535m를 자랑하며 고대 후기 가야시대의 중심이었던 지역 특성을 살려 디자인된 보와 다리에는 대가지를 주제로 한 시설물이 많아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칠곡보

신라 때 도침사상에 따라 땅의 기운을 다스리기 위해 이 지역 가산비유에 묻혀있는 철우(鐵牛) 이야기를 테마로 설계했다. 둔치공원이 끝나는 곳에는 왜관 전투를 기념하는 전적기념관이 있어 수변공간 일대가 호국공원으로 재탄생하게 될 예정이다.

달성보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에 걸쳐 세워지는 두 번째 보인 달성보는 항해를 시작하는 크루즈선을 형상화하고 있다. 새로운 강길을 타고 멀리 뱃사나가는 새로운 사계를 상징한다.

포항 경상북도수목원

봄의 싱그러움을 품은 생태공원

생명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싱그러움 봄날
푸르른 초록의 에너지와 함께 경북의 생태공원을 거닐어보세요.

|포항| 경상북도수목원

평균해발 660m에 위치한 고지대의 2,727ha 국내 최대 면적을 가진 수목원으로 쉽고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도록 고산식물원, 울릉도식물원, 침엽수원 등 24개 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숲해설전시장, 숲체험학습관, 숲생태관찰로 등의 체험시설과 망개나무, 노랑문익새꽃 등 희귀수종과 향토수종의 자생식물 위주로 15,000여 종이 조성되어 있다.

☎ 포항시 북구 죽장면수목원로 647 ☎ 054)260-6130

🕒 하절기 10:00~18:00(3~10월)

🌐 www.gbbarboretum.org

|구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토속·수생·약용식물원을 비롯해 산채원, 자연사 전시관,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토속식물원에서는 약 48종의 토속식물관찰, 가족 꽃밭 가꾸기, 식물관찰학습현장이, 수생식물원에서는 물가와 물속의 다양한 식물이, 약용식물원에서는 허아리, 신겨릅나무, 보리수나무, 멀구슬나무, 수수꽃다리 등을 만나볼 수 있다.

☎ 구미시 금오산로 336-97 ☎ 054)452-4509 🌐 www.igreen.or.kr



영양 일월산 자생화공원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포항 경상북도수목원

|문경| 문경새재자연생태공원

자연생태전시관지구에서는 문경의 생물자원 및 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생태전시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청정지구를 위한 신재생에너지체험시설, 사계절 꽃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생화단지, 구상되어 있고, 자연생태공원에서는 자연학습 및 생태체험장으로 도시민의 녹색 감성을 해소해 다양한 생태자원을 관찰할 수 있다.

☎ 문경시 문경읍 새재길 45 ☎ 054)550-8383 🌐 <http://ecopark.mg21.go.kr>

|영양| 일월산자생화공원

별개미취, 금낭화, 구절초 등 야생화 수 십 종이 단지를 이루고 있고, 화귀한 지역의 향토자원식물을 보존하고 방치된 국토를 살아 있는 땅으로 만들어 생태환경의 교훈과 일제의 수탈역사의 신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봄, 여름, 가을까지 자생하는 야생화를 볼 수 있고 우리의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곳이다.

☎ 영양군 일월면 영양로 ☎ 054)680-6313

|성주| 가야산야생화식물원

전시관에서는 야생화와 나무이야기, 황조롱이의 생태, 가야산의 주요 야생화와 사계를 볼 수 있으며 야생화학습원, 관목원, 국화원, 숙근초원, 가야산자생식물원 5가지 테마로 구성된 야외 전시원에서는 식물의 생생한 체험과 더불어 가야산의 절경을 즐길 수 있다.

☎ 성주군 수륜면 가야산식물원길 49 일원 ☎ 054)931-1264 🌐 www.gayasan.go.kr



쉬엄쉬엄 낙동강 따라가는 걷기여행! 자연이 가슴으로 들어오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간간히 빗방울을 뿌리며 바람까지 차갑다. 3월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 떠올러지는 어느 날 낙동강을 따라 걸었다.

출발점은 상주시 도남마을, 낙동강 상주보 인근인 이 마을에는 '도남서원'이 있다. 누각이 멋진 서원 앞마당에서 내려다보이는 낙동강에는 생태공원으로 잘 정비된 경천섬이 떠있다. 경천섬으로 들어가는 다리는 한 마리 새가 날개를 펼친 듯 낙동강과 어우러지는 모습이다. 경천섬을 마주하고 낙동강 생물자원관 공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배의 형상을 닮은 건물모습은 낙동강과 어울려 멋진 조형미를 뽐낼 것으로 기대된다.

경천섬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상주자연거북물관으로 향한다. 차가 뽕뽕 달리는 도로와는 구별하여 자전거도로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강을 따라 쾌적한 걷기가 가능하다. 상주는 자전거도시로 유명하다.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차도만큼이나 잘 되어있다. 걷기여행에는 최적의 조건인 셈이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상주자연거북물관은 국내 유일의 자연거북물관이다. 가족과 함께라면 2인용·4인용 등 다양한 자전거를 직접 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또다시 자전거도로를 따라 나서다 잠시 숲길을 걷다보면 경천대가 보인다. 드라마 촬영지도 있고, 경천대관광지, 낙동강을 내려다보는 전망대도 있다. 가히 낙동강 제1경이라 할만하다. '하늘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치'라 하여 '자연대'라 불리기도 한다니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풍경이다.

경천대 입구에서 사별 방향으로 잠시 걸으면 상주박물관이 있다.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상주지역 역사를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다시 길을 나서 숲속으로 난 자전거도로와 임도를 이 어가며 매월리 제방까지 1.2km, 들판으로 난 길을 따라 5km 정도면 상주예술촌에 닿는다. 옛 초등학교 자리인 듯한 이곳에는 예술촌임을 알리는 조각작품이 곳곳에 서있다.

이제 사별면 퇴강리를 목적지로 매악산을 향해 걷는다. 잠시 도로를 따라가다 등산로로 접어드는 산길이다. 이제까지와는 달리 제법 힘이 든다.

기분 좋은 맑은 강을 즈음 도착한 사별면 퇴강마을, 낙동강이 비로소 강다운 면모를 갖추며 흐르기 시작하는 곳이란. 그래서 이 마을 앞 작은 공원에는 '낙동강 700리 이곳에서 시작되다'라는 표지석이 서있다.

마을을 바라보면 빨간색 벽돌의 고풍스런 퇴강성당이 유독 눈에 띈다. 1924년 처음 지어진 상주지역 최초의 성당으로 경북 문화재자료 제52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오래된 느낌이 묻어나는 예쁜 고딕양식으로 사진촬영 명소이다.

하루 종일 걸었던 피로가 몰려왔다. 낙동강이 보이는 식당에서 매운탕 한 그릇으로 봄날 낙동강과 함께 했던 걷기여행을 마무리한다.

경북도, 낙동강과 함께 걷는 숲길여행 책자 발간

경상북도는 안동 구담에서 고령 강정마을까지 낙동강을 감고 도는 아름다운 숲길 13개를 선정하여, '낙동강과 함께 걷는 숲길여행'으로 묶어 발간했다.

이 책지는 '낙동강 숲길 따라 이야기가 있는 곳'이란 부제처럼 숲길에 얹힌 선인(先人)들의 애환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 명승과 고찰, 먹고 쉬는 곳을 정리했고, 특히 올해부터 본격 조성에 들어가는 낙동강풍경트레일 조성에 앞서 구담보에서 달성보까지 9개 시·군 659km 가운데 13개 구간의 나무꾼들이 오가던 길, 소로, 임도 등을 먼저 걸어보고 숲길 속에서 만나는 풍경과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엮었다.

또한, 찾아가는 길, 교통편, 식사, 숙박장소 등을 팀으로 엮었고, 숲길에서 마주치는 곳곳의 고찰과 정자, 고옥(古屋) 등 여행정보를 맛깔나게 정리했다.

▶ 담당부서 : 산림산업과 053-950-3907



자연 속으로 일상탈출! 캠핑을 떠나보자!

도내 오토캠핑장 55개소 소개 담은 가이드북 펴내



경상북도는 최근 5일 근무제 정착 등으로 캠핑을 즐기는 이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 경북지역의 수려한 자연을 찾아 여행하는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내에 소재하는 캠핑장 55개소를 소개한 '경상북도 오토캠핑'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경상북도 오토캠핑' 가이드북은 누구나 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캠핑장 시설, 주변 편의시설 등을 철저한 현장 조

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캠핑장의 수용 능력, 바닥 상태 등 18개 조사항목에 걸쳐 시설 현황을 조사, 수록하였으며, 관광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세한 정보 제공을 위해 현장 사진을 풍부하게 담았다.

또한 캠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캠핑장뿐만 아니라, 벽지나 울릉도에 소재하는 캠핑장 소개도 눈에 띄는데, 청정 자연 속에서 이색 캠핑을 즐기자 하는 이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편의시설, 접근성 등에 따라 캠핑장 난이도를 제시하여 캠핑의 숙련도와 동반인의 유형에 따라 캠핑장을 골라 이용할 수 있는 팁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의 특산물, 주변 맛집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소득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오토캠핑장 가이드북은 관광마케팅사업단(☎ 053-950-2197)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으며, 경북도 관광홈페이지 '경북나드리(www.gbtour.net)'에 e-book으로도 게재되어 있어, 무료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산길 따라 오지마을 찾아 '낙동정맥 트레일'

낙동정맥트레일에 이야기를 입혀 숲길 알리기에 박차

경상북도는 봉화에서 울진~영양~영덕~청송~포항~영천~군위~경주를 거쳐 청도에 이르는 10개 시·군을 잇는 숲길인 '낙동정맥' 트레일을 소개하는 도보여행 안내서와 지도점을 발간했다.(*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는 숲길)

이번에 발간된 2종 중 '산길 따라 오지마을 찾아'는 여행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낙동정맥 산자락 깊숙이 자리 잡은 산골마을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오지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도록 트레일 주변의 마을과 마을을 이어서 소개하고, 주변 볼거리와 교통정보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여 여행의 편의를 제공했다.

또한 '산길 따라 오지마을 찾아가는 트레일 맵'은 시·군별 1/100,000 축척의 개념도에 트레일 주변의 산촌생태마을, 자연휴양림 등을 표시, 교통 및 숙박 정보 등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트레일의 난이도를 짐작할 수 있는 개념도구간의 고도표를 제시했다.

경북도는 이들 책자를 일반인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읍면동 포함) 및 전국 국·공립도서관 등에 배부했다.

▶ 담당부서 : 산림산업과 053-950-2852



“경북나들이에 여행워크북 한 권이면 열 선생님 부럽지 않아요!”

경북도, 학습여행 필수 아이템 '경북 학습여행 워크북' 제작·배포

경상북도는 초등학생들이 도내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학습여행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는 '경상북도 학습여행 워크북'을 제작했다.

이번에 펴낸 학습여행 워크북은 학습여행을 목적으로 경북을 찾는 이들이 여행과 현장학습을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라잡이로, 현장 관광정보와 함께 관련 학습지식을 소개하고, 여행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워크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학테마 2권과 역사문화테마 1권으로 총 3권으로 엮여져 있다.

과학테마 워크북은 우주, 자연, 생태, 에너지, 지질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지식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포항 로보라이프뮤지엄을 비롯한 경북 곳곳의 과학체험시설과 관광현장을 소개하고, 역사문화테마 워크북은 문경, 상주, 영주, 예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북 북부권의 역사문화자원을 소재로 꾸몄다.

이번 학습여행 워크북에 수록된 자료는 현직 초등교사의 자문을 거쳐 과학산업자원 18개, 역사문화자원 10개로 총 28개를 수록했으며,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내용 난이도를 조정하고, 현직 초등교사, 여행 작가 등이 집필진으로 참여했다.

또한 초등생들이 지도교사의 특별한 도움 없이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함께 십자말 풀이, 팝업 북 등 다양한 워크지를 수록하여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경상북도 학습여행 워크북은 경북도 관광마케팅사업단(전화 053-950-2197)으로 연락하면 선착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으며, 경상북도 관광홈페이지 '경북나드리(www.gbtour.net)'에 e-book으로도 게재되어 있어 무료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경북인의 독립운동정신 되살려 ‘민족의 혼’ 일깨우다!!

경북지역 항일독립운동 집대성, 올해 총 7권 편찬작업 마무리



경상북도는 경북인의 독립운동과 그 정신을 알리고자 지난해 1차로 '경북 독립운동사(Ⅰ~Ⅱ권)'를 발간한데 이어 3·1운동과 국·지역 항일투쟁사를 담은 '경북 독립운동사 Ⅲ, Ⅳ권'을 발간하여 국·공립도서관, 대학도서관, 고등학교 등에 배부하고, 2015년까지 건립될 예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의 전시콘텐츠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경북독립운동사 Ⅲ·Ⅳ권 발간작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개월간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주관으로 김희곤 안동대 교수 등 12명의 독립운동사 전문가들이 연구 집필을 맡고, 한시준 단국대 교수, 김영범 대구

대 교수 등 10명의 교수·연구원 등이 자문에 참여했다.

'경북 독립운동사 Ⅲ(3·1운동편)권에서는 3월 11일 포항, 12일 의성(비안)·구미(인동)를 시작으로 경북 전역(경산·군위 제외)으로 확산돼 청도(매전) 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3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80여 곳에서 90회 이상 일어났던 경북의 3·1만세운동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또 '경북 독립운동사 Ⅳ(국외지역 항일투쟁편)권에서는 경북인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던 만주지역을 비롯해 중국 관내 지역과 미주·일본 지역 등 지역별 및 연대별로 독립군 기지 건설과 활동사, 특징을 정리했다.

'경북 독립운동사'는 한국독립운동의 발상지이자 역사상 가장 많은 독립유공자를 낸 경북의 위상을 정립하고, 호국정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경북지역 내 항일독립운동을 분야별·시기별·지역별로 집대성하는 의미있는 작업으로, 경북도는 올해 V권(사회운동편), VI권(항일사적편), VII권(총론·독립운동가 열전편)을 발간하는 것으로 3년(2011~2013년)에 걸친 '경북 독립운동사' 편찬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053-950-2834

제4회 전국 대학(원)생

독도논문공모전

대한민국의 이념을 여는 독도가 한반도의 사명을 가집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독도인식제고와 독도수호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그리고 독도공공가수송선과 독도관광을 위해 독도 논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독도를 사랑하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공모 주제

1. 한·일의 독도인식과 대응
2. 제3자의 독도인식
3. '한국영토 독도'에 대한 인식확대 방안

참가 자격

- 전국 대학생(재학생), 대학원생(수료생 포함)
- 연구팀을 구성할 경우 3인 이내 공동참가 가능

공모 일정

공고기간	2013. 3. 15.(금)~2013. 5. 31.(금)
참가신청서 접수	2013. 4. 1.(월)~2013. 4. 30.(화)
신청서 양식 및 논문 작성법	사이버독도 홈페이지 참고 (사이버독도 http://www.dokdo.go.kr)
논문접수기간	2013. 5. 27.(월)~2013. 5. 31.(금)

1차 결과발표 : 2013. 6. 11.(화)
2차 PT 심사 : 2013. 6. 25.(화)
시상식 : 2013. 6. 25.(화)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제출 논문은 반환 하지 않음.

- ◎ 주 최 : 경상북도
- ◎ 주 관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공모 요령 및 접수 방법

논문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60매 내외 (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 A4 20매 내외
제출 서류	논문 인적사항(이름, 주소, 휴대폰, E-mail) 재학 및 재적 증명서 1부
제출 방법	우편 또는 E-mail
제출처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 이정태교수 E-mail : leejt44@knu.ac.kr
문의	독도논문 담당자 ☎ 053-950-5212 / 010-9494-5093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편 (300만원)
우수상	1편 (200만원)
장려상	2편 (각 100만원)

※ 수상자 전원 독도방문 기회제공



■ 일자리 많이 만드는 '행복나눔기업' 선정

경상북도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체를 매분기마다 선정·시상하는 '행복나눔기업'으로 올해 1/4분기에는 김천시 남면 소재 리모트솔루션(주)과 칠곡군 왜관읍 소재 ㈜엘엔에프신소재를 선정하고, 3월 11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 이인선 정무부지사가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증패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 이주석 행정부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 현장 확인

경상북도는 최근 일련의 화학사고와 관련하여 유독물 안전관리 실태와 작업환경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기 위해 이주석 행정부지사가 직접 주말인 3월 9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인 경산시 소재 코오롱인더스트리(주)를 방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주와 현장 관리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영화배우 유오성,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기원

영화배우 유오성씨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안동시민운동장 내에 발족한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상북도 기획단과 안동시 지원단을 방문,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동안 안동시 등 경북지역 15개 시·군에서 열리는 2013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주경기장인 시민운동장에서 기념촬영과 사인회를 가졌다.

■ 숲 해설가 전문과정 운영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은 3월 8일 (사)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와 '숲해설가 전문과정'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 (사)한국숲해설가협회 경북협회 주관으로 경북산림환경연구원 교육시설을 지원하여 3월부터 7월까지 월5회, 30명을 대상으로 산림생태, 숲해설프로그램 개발, 산림교육론, 야생동물의 이해 등 24개 과정의 '숲해설가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범위 확대

경상북도는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2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어업용 화물자동차와 경운기, 트랙터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어 어업인들은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이 강화되어 부정유출사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면세유류 취급을 제한한다.

■ 경북도,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대상 수상

경상북도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23개 시·군과 경북관광공사,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북관광협회 등과 공동으로 참가하여 이스타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 세계문화유산 양동·하회마을, 고택제현, 템플 및 팜스테이, 종가전통음식, 축제 한마당, 경북관광 상품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주제로 홍보관을 운영한 결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제94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경상북도는 아흔 네 번째 3·1절을 맞아 3월 1일 상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김관용 도지사, 생존애국지사, 도내 기관단체장, 보존단체장, 독립유공자 유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의 도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단위 3·1절 기념식을 개최하고, 도내 곳곳에서 순국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삼일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식, 독립만세운동 재현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열었다.

■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로 함께 쓴 어린이 이유식과 간식 이야기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최근 농촌에서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 초보엄마들이 어린이들의 이유식과 간식요리를 손쉽게 만들 수 있도록 '어린이 이유식과 간식이야기' 책자를 우리말과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발간했다. 육아단계별 이유식, 어린이 입맛에 맞는 육아식, 다문화국가별 간식 등 총 30여종의 음식과 우리전통음식의 기본양념, 국물 만드는 법, 맛있는 밥 짓는 법 등을 수록,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gba.go.kr)에 게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 경북 재난안전네트워크 2013 정기총회 및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는 2월 28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주석 행정부지사, 류재용 경북재난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비롯한 20개 기관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북을 만들기 위한 '경상북도 재난안전네트워크' 2013년 정기총회 및 1/4분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 경북도, 그린마을 우수마을 수상 영예

경상북도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주관하는 '그린마을 육성사업 평가'에서 상주시 지천동 9동 주민들이 녹색생활실천 시범마을을 155개 대상마을 중 우수 마을로 선정,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상패와 시상금 2백만원을 부상으로 받았으며, 봉화군도 장려상에 선정되어 상패와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13 건강도시사업 공모, 3개 시·군 선정

경상북도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건강도시 프로젝트 일환으로 올해 처음 도입한 '2013 건강도시사업' 공모에서 포항시·구미시·성주군을 우수시·군으로 선정, 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총 1억 2천만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건강도시란?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건강을 두고 교통·환경·복지조성 등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개선·노력하는 도시(WHO정의))

■ '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 그랜드플랜' 최종보고회 개최

경상북도는 2월 25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주석 행정부지사, 낙동강 연안정책 심의위원 및 도와 낙동강 연안 15개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 낙동강 프로젝트 그랜드플랜' 최종보고회를 개최,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낙동강을 만들고 강과 더불어 사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낙동강의 미래와 강 연안 15개 시·군의 공동협력 방안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 경북소방 활동정보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공유

경상북도는 '모바일 메신저'의 빠른 확산력과 파괴력을 이용하여 소방안전정보, 재난상황정보를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조인'을 통해 전파하는 '스마트 119톡'을 3월부터 추진, 1차적으로 소방본부 및 3개 시·군(구미, 경산, 의성)소방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4월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국원전기자재산업지원센터 개소식 가져

경상북도는 1월 15일 경북테크노파크에서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 경북테크노파크 장래웅 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송재철 경영관리본부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남궁민 원장,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 홍성희 회장 및 원전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원전기자재산업지원센터 개소식 및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 '경상북도 신청사' 명품 5관왕 달성!

경상북도는 경상도 개도 700주년인 2014년 6월 개청을 목표로 도청 신청사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사가 에너지 효율 1등급,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지능형 건축물 1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지난 1월 15일 최종 획득했다고 밝혔다.

■ 제5회 섬김이 대상 최우수기관 선정

경상북도는 1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이주석 행정부지사,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과 권태신 부위원장,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 권희태 충청남도 정부부지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5회 섬김이대상 시상식'에서 2009년에 이어 최우수기관 표창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 경북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실라리안' 추가 지정

경상북도는 2월 1일 도청 접견실에서 2013년 중소기업 우수제품 공동브랜드 '실라리안'에 추가 선정된 6개 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품은 '생활용품 분야' (주)원바이오텍의 '가정구급약'과, SKM글로벌의 '휴대폰케이스'로 2개 업체 2개 품목, '식품분야' 동양종합식품(주)의 '햄, 샐러드, 돈까스', (주)굿모닝푸드의 '쌀국수', (주)토리식품의 '호박죽, 팔죽', 떡배기식품의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4개 업체 9개 품목 등 총 6개 업체 11개 품목이다.



■ 특수재난 대비 119특수구조단 설치

경상북도는 특수재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재난대책팀, 긴급기동대, 소방항공대 등 3개팀 38명으로 구성된 '119특수구조단'을 설치, 2월 19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119특수구조단은 기존 분산된 특수사고 분야의 인력·장비를 재배치하여, 화학·원자력·산악·수난구조, 항공구조 등 특수사고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전담하게 된다.

■ 인공위성 통해 농업정보를 한눈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인공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농작물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www.gba.go.kr) 농작물지리정보에 접속하면 누구나 필지별 토양정보와 작물별 재배지, 작물재배방법, 병해충 발생 상태와 방제법, 토양분석결과 및 최근까지의 기상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경북산림자원개발원,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경상북도산림자원개발원 홈페이지(www.gbforest.go.kr)와 경북산림과학박물관 홈페이지(www.gbfsn.or.kr)가 장애인 편의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임을 인증하는 마크인 '웹 접근성 인증마크(WA인증마크)'를 한국장애인권포럼으로부터 각각 2012년 12월 3일, 2013년 1월 4일 획득했다.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아프리카 만들기 프로젝트

경북도, 14개국 주한아프리카 대사들과 새마을세계화 확대 방안 협의



경상북도는 3월 18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데스몬드 아가워(Desmond Akawor)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 등 14개국 주한 아프리카 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부터 경북도가 추진해오고 있는 '경북형 새마을 사업모델'을 아프리카 대륙에 확대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아프리카대륙의 새마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UNWTO ST-EP(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Sustainable Tourism for Eliminating Poverty, UN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과 함께 한국주재 아프리카대사들을 초청, 경북도의 새마을세계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문화가족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다!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홍보대사 위촉

경상북도는 3월 15일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에 성공한 모범 다문화가족 6명을 경상북도 다문화가족 홍보대사로 위촉, 김관용 도지사가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베트남 출신 도티빛음(병원 통역 코디네이트), 중국 출신 조만숙(마을이장), 필리핀 출신 레콜리타 디카스페(다국어마을 영어강사), 일본 출신 고후나바 무쓰코(문화관광해설사), 캄보디아 출신 키소피(통·번역사), 네 팔 출신 라세스 천드러 조시(의사) 등으로, 이들은 경북도 홍보 및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며, 출신국과 한국 간 상호 증진을 위한 민간외교사절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 생생한 도민생활 현장에서 소통

의성군민 1000여명 참석한 '도민참여교육'에서 특강도

김관용 도지사는 3월 12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대통합을 통한 국민행복을 지방에서 실현하고 민생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기 위해 의성군에서 '생생한 도민생활 현장탐방'을 갖고, 의성군청 회의실에서 250여명의 군청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와 함께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의성농공단지협의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하여 사회단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현안과 의성발전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의성문화회관에서 지역주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도민참여교육'에서 특강을 했다.

소방본부-경북지방우정청-모범운전자협회 업무협약 체결

경북도, 집배원, 모범운전자 '명예119요원'으로 활용

경상북도는 3월 12일 소방본부 회의실에서 우체국 집배원, 모범운전자들 '명예119요원'으로 위촉, 지역의 각종 사고위험 등 '재난 전조정보' 발견 시 119에 신고하고 초동조치 역할을 맡도록 하는 지역 재난예방 프로젝트인 '미리알리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지방우정청, 모범운전자협회경북지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도내 우체국 집배원 1,166명과 모범운전자 1,430명이 '명예119요원'으로 활동하며, 소방본부에서는 11월 소방의 날에 우수활동 요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등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시장·군수, '경북 행복드림' 다짐 결의!

도와 23개 시·군 상징 블록에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 슬로건 새겨 제막



경상북도와 경북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병목 영덕군수)는 3월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23개 시·군 시장·군수 모두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하는 '경북 행복드림' 다짐행사를 가졌다.

이날 김관용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한 박근혜 정부가 마음껏 국정을 펼치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도록 도를 중심으로 23개 시·군이 화합하고 힘을 합쳐 나가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어 개최한 도지사-시장·군수 정책간담회에서는 2013년 도정방향과 역점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원자력 안전, 각계각층이 뭉쳤다

경북도, 전국 처음으로 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



경상북도는 3월 6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하여 김근섭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송필갑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병목 영덕군수, 임광원 울진군수, 경상북도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사고 2주기를 맞아 경북의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상북도원자력안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경상북도원자력안전협의회는 36명의 위원으로 협의회

를 구성, 원전 현안 논의와 안전점검 실시, 정부의 원자력 안전개선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행복시대, 역대부농의 꿈 활짝 펼치세요!

경북농민사관학교 2013 합동개강식 개최

경상북도와 경북농업마이스터대학은 3월 5일 구미 경운대학교 강당에서 김관용 도지사, 이성근 대구경북연구원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행복시대, 역대부농의 꿈을 경북농민사관학교에서 활짝 펼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2013년 '경북농민사관학교 합동개강식'을 가졌다.

지난 1월 2013년 교육생을 모집한 결과 37개 과목 1,050명 모집정원에 1,866명의 원사가 접수되어 평균 1.8 : 1의 역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힐링푸드생산자양성과정(경북농업기술원)'은 25명 모집에 98명이 지원, 4 : 1의 경쟁률로 인기를 실감케 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지난해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 '지역 농어업 핵심리더 2만명, 경북농어업청년리더 1만명 육성'을 목표로 명실 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농어업 평생교육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경북도, 세계 속으로! 해외자문위원이 앞장선다!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개최 지원 등 논의

경상북도는 3월 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도지사와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황재길 회장 등 대륙별·권역별 회장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도정 슬로건인 '세계 속으로'의 국제화 구상을 설명하고 주요 전략사업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2013년 해외자문위원협의회 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장단 회의에서는 지난해 도정 성과와 함께 새로운 도정방향과 역점시책을 설명하고, 최근 경북도 국제화·세계화 전략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과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결의했다.

새마을운동 세계화 & 세계 물 포럼, UN과 함께 세계로...

김관용 도지사, UN사무부총장 등 유엔기구 주요 인사들과 만남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2월 24일 서울W워커히호텔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잔 엘리야스 UN 사무부총장과 미첼 바첼레트 유엔여성기구 총재 등과 면담을 갖고 경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세계화사업과 2015년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를 위한 UN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관용 지사는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가장 든든한 옹호자인 반기문 UN사무총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면서 UN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빈곤 퇴치에 함께 발맞추어 나갈 것을 요청하고, 2015년 개최 예정인 '제7차 세계 물 포럼'에 대한 UN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 및 선진국의 적극적 참여와 저개발국의 참여확대 지원을 촉구했다.

에코 경북! 산림일자리 창출 발대식 개최

올해 상시일자리 7천 2백여 개, 연인원 195만명 일자리 제공



경상북도는 2월 19일 상주시민체육관에서 김관용 도지사, 김중태 국회의원, 김남균 산림청차장, 성백영 상주시장, 산림분야 근로자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코 경북! 산림일자리 창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김관용 도지사가 씨이의 '강남스타일'을 개사한 '산림 스타일'을 근로자들과 함께 하며 발대식의 흥을 돋우고, 유공 민간인 포상, 일자리창출 총력 결의문 낭독, 산림사업 재해예방 안전교육, 임업기계장비 전시 및 시연회 등을 진행했다.

경북 대표 '토종 브랜드' 로봇 4인방 한자리에 모여

경주·울진·봉화·청도 4개 시·군 지역특화 개발로봇 합동 시연

경상북도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2월 21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군 특화산업 로봇융합사업' (이하 시·군 특화사업)의 '개발로봇 성과시연회 및 2013년도 시·군 특화사업 신규로봇 아이템 발굴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2010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현재 각 지역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경주 노인간호 보조로봇, 울진 대계관 안 내로봇, 봉화 산불감시로봇과 함께, 오는 4월 청도 소싸움 축제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인 청도 소싸움로봇의 합동 성과 시연회를 가졌다.

경북관광순환테마열차 동해안 바다열차로 확대 개통

경상북도는 2월 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저탄소 녹색관광을 선도해온 경북 관광순환테마열차가 동대구와 포항을 잇는 '동해안 바다열차'로 확대 운행하기 위한 개통식을 가졌다.

동해안 바다열차는 동대구역을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54분 출발하여 하양, 영천, 진천, 서경주, 경주, 안강역을 거쳐 포항역에 11시 45분 도착한 후 오후 5시 12분 출발하여 동대구역 7시 24분 도착으로 편도 2시간 정도 소요되며 패키지 열차요금은 3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3년 '이 달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가' 선정·발표

300만 도민의 정신적인 뿌리, 13분의 독립운동가 정신 되살려



경상북도는 1월 24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2013년 '이 달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가'로 선정된 유족(후손) 13분께 기념패를 전달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2012년 4월부터 경북지역 출신으로 위국헌신한 독립운동가를 매월 한 분씩 선정해 이 분들의 공적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2013년 이 달의 경상북도 독립운동가 선정인물

- | | |
|--------------------------|---|
| 1월 : 신태식(1968, 독립장), 문경 | 7월 : 김지섭(1962, 대통령장), 안동 |
| 2월 : 이승희(1977, 대통령장), 성주 | 8월 : 최세윤(1968, 독립장), 포항 |
| 3월 : 이명균(1968, 독립장), 김천 | 9월 : 박연백(1963, 독립장), 의성 |
| 4월 : 노병대(1968, 독립장), 상주 | 10월 : 이만도(1962, 독립장), 안동 |
| 5월 : 이상룡(1962, 독립장), 안동 | 11월 : 김도현(1962, 독립장), 영양 |
| 6월 : 장진홍(1962, 독립장), 칠곡 | 12월 : (父)정환직(1963, 대통령장), 영천
(子)정용기(1962, 독립장), 영천 |

〈제260회 임시회 결산〉



■ 올해 첫 임시회,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의정활동 다짐 ■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 민생관련 안건 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송필자)는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0회 임시회를 개최, 1월 23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김관용 도지사와 이영우 도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 경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각 실국별 업무보고와 각종 민생관련 안건 처리, 도정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2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처리하고 폐회했다.

■ 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장 수여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1월 8일 의장실에서 경북대학교 김정호 교수(균형발전연구회), 대구한의대학교 임원현 교수(임업발전연구회), 경북행복재단 박종철 팀장(사회안전망연구회), 경북환경연수원 심재현 팀장(자연공원생태연구회) 등 외부전문가 4명을 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장세헌) 외부위원으로 위촉, 위촉장을 수여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문전성시사업 추진현황 점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길)는 1월 28일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소재 봉화전통시장을 찾아 2010년부터 추진하는 문전성시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29일에는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태백산눈축제' 현장을 찾아 콘텐츠 개발 및 운영노하우를 연구하는 등 타시·도 문화환경분야 프로젝트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비교견학하며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신도시 정주여건 등 점검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올해 첫 특위 활동으로 1월 30일 도청이전지 현장에서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 및 진입도로 건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 운영위원회, 도의회 신청사 건립현황 점검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1월 31일 도청이전을 앞두고 안동·예천 일원 도청이전지 현장을 찾아 경북도의회 청사를 비롯한 도청 신축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도청 및 도의회 신청사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중 주문, 신도청이전이 명실상부한 지역균형발전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 열띤 토론



경상북도의회는 2월 1일 도의회 제2별관 세미나실에서 송필각 의장 등 60여 명의 의원과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고문으로 있는 금오공대 조진형 교수, 대구경북연구원 최영은 지역창조및균형발전본부장, 박대희 도청이전추진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청시대 경북의 발전과제와 의정활동 방향'을 주제로 입법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임을 명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의회운영위원회 박병훈 위원장은 2월 14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주도 일원에서 공동개최한 '박근혜정부와 새로운 지방의회 위상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 토론자로 참석,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임"을 명시하고 그에 맞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주권의 지역적 주체이며, 지방의회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핵심인 이상 지방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및 '독도 전담부서 설치' 규탄



경상북도의회는 2월 22일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린 이른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행사에 일본정부 차관급 인사를 파견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2월 6일에는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설치한다고 밝힌데 대해 도의회 차원의 규탄 성명서를 발표, 우리 영토인 독도 관련 조직설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관련 세미나 개최

의원연구단체인 자연공원생태연구회(대표 서정숙 의원)는 정책연구위원회 장세헌 위원장과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 외부전문가, 대구시와 경북도,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월 27일 칠곡군에서 '팔공산의 가치와 국립공원 승격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팔공산의 가치를 재정의하기 위한 활발한 정책토론을 펼쳤다.

이에 앞서 자연공원생태연구회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최근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광주광역시 무등산 국립공원을 찾아 '대구·경북의 영산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자연공원 관리와 국립공원 승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경주에서 개최〉

■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문 등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3월 6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현대호텔에서 2013년 제3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17개 의장이 공동으로 '이stanbul-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3'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담아 올해 8월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이stanbul-경주 세계문화엑스포 2013' 성공개최 지원 결의

문을 채택하고, 경상북도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의회의 주민대표기관 명문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관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공동성명서',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연장관련 건의문'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송필각 의장, 포항 용흥동 산불피해지역 현장방문



경상북도의회 송필각 의장은 3월 10일 장두옥 건설소방위원장과 장경식 의원, 이태안 의회사무처장 등과 함께 산불피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일대 현장을 긴급 방문, 대흥초등학교 산불지휘본부와 포항 학산복지관을 찾아 피해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복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북·대구 상생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의회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3월 13일 대구광역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대구상생발전을 위한 도·시의회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북·대구의 지역발전과 현안사항에 대한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주요 사업현장 점검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전찬길)는 3월 15일 친환경 경산업시설인 포스코 환경감시센터, 임산버섯이용 대사성질환 신약 후보물질 개발연구 현장과 사방기 술원 조성지 등을 찾아 사업 추진실태와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제261회 임시회 결산〉



■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도정질문 실시 ■

경상북도의회는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임시회를 개최, 3월 13·14일 양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안전심사 및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으며, 3월 26일 본회의에서 그동안 심의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 도정질문 요지



■ 광광섭 의원(농수산위원회)

강정고령보 우측교 차량통행에 대한 도의 입장, 우측교 도로개통을 위해 경북도 주도로 대구시, 고령군, 달성군간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 경북도의 결핵 관리대책, 최근 4년간 결핵관련 예산 증가에도 도내 결핵환자 수가 증가한 이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기초공정산업인 뿌리산업을 발전시킨 차별화된 경북도만의 특화방안, 고령 다산산업단지를 '가칭'친환경 뿌리산업 전문특화단지'로 조성할 의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희원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어촌으로 유입되는 귀어인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의향, '독도의 날'을 2013년도에는 '고종황제 독도척령 제정 113주년 기념일'로 명칭 변경을 할 의향, 독도척령제정 기념일 등 독도수호기념일을 만들 의향, 독도관련 각종 행사를 민간주도로 양성·지원할 의향, 칠곡보 주변 농경지 침수에 방 위해 배수장 확장 및 배수펌프 추가 설치 제안,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수자원공사에 건의하여 낮출 의향 등에 관해 질문했다.



■ 박태환 의원(교육위원회)

낙동강 살리기 사업 완공 후 친수공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도지사의 대책, 국비 확보에 차질이 생겨서 관리 비용 때문에 친수공간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제기될 민원에 대한 대책, 유사취발유 등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문란을 근절시키기 위한 대책, 유사취발유 단속을 대구시와 공조하여 공동으로 시행할 방안, 독거노인 공동생활체 활성화에 대한 견해, 관련법 규정보다 도내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이 적은데 대한 대책 등을 질문했다.

■ 고우현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경상북도 차원에서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준비하고 지원하는 내용 및 예산부담내역, 2014년과 2015년 국비예산 편성 시 세계군인체육대회 운영비 전액과 시설비 등이 국비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예산계획을 대회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고, 시설비의 경우 국비 50%, 도비 30%, 시비 20% 비율로 다시 부담계획을 재수립하는데 대한 견해 등에 대해 질문했다.



■ 김명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2013년을 '분권형 개헌의 해'로 삼아 추진하는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경상북도의 지원 수준 향상에 대한 견해, 도청 신청사 개청 시기를 서두르지 말고 한 템포 늦추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데 대한 도지사의 견해, 도청신도시는 6:4의 비율로 안동과 예전에 분할임지하고 있는데 행정서비스 통합공급을 위해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도청이전과 함께 안동·예천 통합을 추진하는데 대한 견해 등에 관해 질문했다.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지진해일 위험에 대비하여 설치한 대피소를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점검할 것을 촉구, 불의의 원전사고 및 지진해일에도 안전한 지역에 경북도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대피소를 건립할 의향, 경북도는 연간 방재립 조성 현황, 해안 방재립 조성 사업에 대한 견해, 경북도립대에 타 대학에서 개설하지 않는 특수공공분야 학과를 새로 신설할 의향, 울진군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 산하 경북개발공사 통해 아파트를 지어 임대할 의향 등을 질문했다.



■ 경산특수학교, 울진 원자력마이스터고 등 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산특수학교(가칭)와 경주의 글로벌예절체험관을 찾아 주요사업의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울진의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잇따라 방문해 원자력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현지활동을 펼쳤다.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릴레이 정책간담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장두욱)는 지역 전문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3월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북도회와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 관계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어 장두욱 위원장 등 건설소방위원들은 도의회 전정에서 개최한 '이동안전체험차량 시연회'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을 참관하였다.





숙련기술인 최고 장인 찾는다!

22개 분야 96개 직종 대상, 4월 26일까지 신청 접수

경상북도는 숙련기술자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경북의 기술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고 장인을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하기 위해 2013년도 '경상북도 최고 장인'을 선정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후 올해 두 번째인 최고 장인 선정은 22개 분야 96개 직종에서 5명 정도를 선정할 계획이며, 후보자는 4월 26일까지 접수한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도내 산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산업 현장에 종사하고 기술 수준 및 품성이 다른 기술인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공정·품질 개선 실적 및 사회 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가운데 과거에 같은 분야의 최고 장인 및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2013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 배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 제외되고, 서류는 접수 마감일(4월 26일)까지 도착하면 된다.

후보자는 경상북도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선정·발표는 5월 중 실시할 계획이며, 최고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최고 장인 증서와 함께 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5년간 지급하게 된다.(1인당 총 1천 8백만 원)

최고 장인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알림마당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면 되고, 시장·군수, 도내 기업체의 장,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사)대한민국명장 대구경북지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노사지원과(☎ 053-950-3244)로 문의하면 된다.

▶ 담당부서 : 기업노사지원과 053-950-3244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200만원

경상북도는 2월 23일부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하며, 지난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법이 제정되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가 해당된다.

· 보험가입대상(22개 업종) :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학원, 목욕장(찜질방),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실내 권총사격장, 실내 골프 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는 영업주는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하며,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영세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5개 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방법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특수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에게는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담당부서 :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053-715-2144

발농업직불제 신청하세요!

하계작물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

경상북도는 2013년도부터 발농업직불제 대상 품목이 26개 품목으로 확대되어 시·군별 읍·면·동사무소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로 구분하여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동계작물은 3월 2일부터 23일까지로 신청을 마쳤으며, 하계작물은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부에서 정한 19개 품목에서 감자, 고구마, 양파 등 7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6개 품목에 대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공부상 지목인 밭에서 정부에서 정한 상기 품목을 경작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직불금 지원 단가는 ha당 40만 원이며, 농가당 최대 지급 금액은 160만 원으로, 당해 연도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총합으로 전액 국비로 지급하게 된다.



■ 대상품목

- 동계 :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식료(이탈리아안라그라스 등),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 하계 :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 잡곡(기장, 피, 울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식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 추가 품목 : 감자, 고구마, 들깨, 유채, 양파, 대파, 쪽파.

▶ 담당부서 : 친환경농업과 053-950-2859

우리 집 사랑스러운 반려견 반드시 등록하세요!

2013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 시행

경상북도는 반려견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 주고,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201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등록 대상은 인구 10만 이상 시·군의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며, 소유자는 시·군에서 지정한 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 * 대상 시·군(10개)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법인,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 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③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등록대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북도에서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13년 상반기(6월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홍보와 계도에 중점을 두며, 하반기부터 미등록 등의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 담당부서 : 축산경영과 053-950-3659



국내 유일 순수 천문과학축제, 제10회 영천보현산 별빛축제

4월 25~28일까지 보현산 일원에서 열려

국내 최대의 국립보현산천문대와 보현산천문과 학관이 자리한 보현산 일원 별빛마을에서 4월 25일(목)부터 28일(일)까지 4일간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개최된다.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는 '별의 수도, 별의 도시-스타

영천' 도시브랜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밤하늘과 친환경'을 콘셉트로 한 순수 천문·과학축제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별과 우주, 과학과 친환경을 소재로 한 다양한 학습의 장을 제공한다.

보현산천문대가 보유한 국내 최대 1.8m 천체망원경 시설은 1년에 딱 한 번, 영천보현산별빛축제 기간에만 일반인들에게 개방되며, 천문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제공할 것이다. 보현산천문과학관의 5D 동영상관 관람, 춤추는 로봇공연, 800mm 천체망원경 관측 프로그램은 천문·우

주에 대한 흥미로운 체험거리이다. 아마추어 천문인들의 별잔치, 스타파티는 밤늦도록 신비한 밤하늘을 관측하려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고 야외 무대에서 펼쳐지는 별자리 강연은 스토리가 있는 별자리 이야기와 천문학에 대한 상식을 들려준다.

또한 해마다 새로운 주제로 관람객을 맞이하는 주제관 역시 기대되는 프로그램으로 동전블랙홀 체험, 우주인 포토존, 3D입체성운체험, 1.8m 천체망원경 포토존, 자가발전 기차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흥미진진한 천문, 우주, 친환경 과학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것이다. 이외에도 별빛마을 농촌마을체험과 별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학습거리가 풍성하게 마련된다.

제10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가 열리는 보현산 별빛마을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2012 한국인이 꼭 가 봐야 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될 만큼 청정한 농촌정경과 밤하늘의 풍성한 별을 간직한 농촌마을로 별빛 나이트 투어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별빛마을에 들어서면 보현산천문과학관이 눈에 띄고 멀리 보현산 천문대가 눈에 들어온다. 별빛마을 벚꽃거리를 걸으면서 고즈넉함을 느껴보거나 보현산하늘길을 가볍게 트레킹 하는 것도 영천보현산 별빛축제의 또 다른 즐거움이 될 것이다.



2013 문경전통찻사발축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문경시는 '찻사발에 담긴 전통, 그 깊은 울림(부제 사토에서 찻사발까지)'이란 주제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 동안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2013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개최한다.

올해로 15회째인 2013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최우수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어 올해엔 더 내실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축제 진행으로 최우수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 할 기회로 삼아 더 큰 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하고 일정금액을 다시 축제 상품권으로 교환해 줌으로써 축제장에서 식권, 체험, 특산물 구매 등 모든 부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의 직접적인 소비를 촉진시켜 축제 경기활성화와 축제 자생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편안하고 즐거운 축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며, 외국 도예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 찻사발 공모전을 확대하고, 국제 도자기 워크숍에 유명 도예교수를 초빙해 도자기 유행 및 전망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또한 체험프로그램도 전문가의 진행으로 보다 재미있고 짜임새 있는 연출로 관람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찻사발 스쿨을 통해 전통찻사발을 직접 만들어 볼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고영조 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키워 나가겠다"며 "많은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자연에서 보고, 느끼고, 배워요!

신나는 체험 학교 가산산성권역 농어촌 인성학교

칠곡군 가산면 가산리·웅추리·웅수리 일원 가산산성권역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가산산성권역이 '농어촌 인성학교'로 선정되었다.

농어촌 인성학교는 학교폭력, 자살, 따돌림, 건전한 근로의식 결여 등 청소년들의 인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청소년을 위한 학습 콘텐츠로 활용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력 사업이다.

이번 농어촌 인성학교 선정으로 가산산성 농촌마을권역은 농촌마을의 전원적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됐으며,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즐거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농업과 교육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산산성권역 농촌마을 인성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협동심과 인내심을 길러주는 천연염색 체험과 자연의 소재들을 이용한 다양한 예술작품 만들기, 4계절을 제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오감체험,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음식의 재료들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재배하는지를 보고 배우는 농작물 수확 체험 등이 있다. 또 가산면은 일교차가 크고, 높은 지대가 많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맛있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고 있어 사과 따기 체험과 사과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지난 2월에는 농어촌인성학교의 주요 시설인 가산전원휴양센터를 준공,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먹고, 자며, 체험활동을 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시설과 위생·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가산전원휴양센터는 1996년 폐교된 동창초등학교의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762㎡의 건물을 신축, 입교생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두루 갖췄으며, 동시에 90명을 수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산산성 마을권역에는 사업비 45억원을 투입,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소득기반조성시설과 녹색체험길 조성, 운동 휴양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들을 위한 마을리더교육, 마을경영 지원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앞으로 칠곡군은 농어촌인성학교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는 정서 순화 및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낙후된 농촌마을에도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가산전원휴양센터

- 위치 : 칠곡군 가산면 가산로 891
- 문의 : 칠곡군 농어촌인성학교 운영위원장 (박규봉 011-9598-6635)
칠곡군 농어촌인성학교 사무장 (김명숙 010-3520-2263)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 개최

꿈이 이루어지는 혁신도시 김천에서 하나 되는 도민의 '행복축제'



영, 다양한 사연을 가진 시민의 공모를 통한 성화 봉송주자 선정 등 역대 어느 제전보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화합축제·문화축제의 장으로 만들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김천시 14만 시민의 따뜻한 정과 훈훈한 인심으로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 김천'을 알리고 다시 한 번 300만 옹도 경북의 역량을 대내외에 펼칠 기회를 살리기를 기대해 본다.

2013년 5월 김천에 성화의 불꽃이 타오른다. 5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주 개최지인 김천종합운동장과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25개 경기종목에 도내 23개 시·군 선수·임원·관람객 등 총 35,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천시는 '꿈이 이루어지는 혁신도시 김천에서 하나 되는 도민의 행복축제'라는 대회비전을 가지고, 전국 최고의 시설에서 최상의 대회운영으로 한 차원 높은 '으뜸체전', 시민의 친절과 정으로 300만 도민에게 기쁨 주는 '감동체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생활에서 즐기는 '문화체전', 체전을 통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경제체전', 경쟁을 넘어 화합과 소통으로 동반 성장하는 '상생체전', 국토중심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도약체전'이라는 지향목표를 설정하고 체전준비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 역사의 새로운 반세기기를 열어나가는 대회 의의를 갖고 도민체전 특별전시관과 도민체전 개막작 자체창작 뮤지컬 '강' 제작·공연, 이벤트 광장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하고, 최고수준의 대행사를 공모하여 역동하는 혁신도시의 이미지와 김천시의 전통문화를 표현한 개회식 등 특색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회 범조성을 위한 시민건강 걷기대회와 주관방송사와 연계한 시민음악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흥보·체험 버스 설치와 1,000여명의 자원봉사자 모집, 시민리포터즈 운영,

2013. 5.10~5.13
김천종합운동장
의 종합경기장

주최: 경북도, 김천시, 김천군
주관: 김천시, 김천군
주최: 경북도, 김천시, 김천군
주관: 김천시, 김천군



언제 어디서나 도로명주소입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꿔보세요.
더 빠르고 편리한 생활-
도로명주소가 만들어갑니다.

- 주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세요 www.juso.go.kr
지번주소, 건물명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눈에!
- 스마트폰에서 찾아보세요 '주소찾아' 앱(App)
건물번호판을 비추거나, 건물명을 검색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손에!
주소찾아 앱(App)은 홈페이지에서,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하여 설치 후 사용 가능합니다.
-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검색창에 지번주소를 입력하면
내가 찾는 도로명주소가 한 번에!

◇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가 전편 사용 됩니다.